

5/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박이진



〈마사코 황후와 아이코 공주의 사랑 넘치는 성장 스토리〉『週刊女性』2023년12월19日号
<https://dmagazine.docomo.ne.jp/article/1b256bd4ebae540f879c3ea2541bd0493e4576a5178413cedb2dbd68b0556b01/e19dd802dbcb3f818c74315f88ac8fa03259df7716f294c6d2315c0a6b2e43d9>(최종 검색일: 2024. 1. 8.)

박이진(朴利鎭)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오사카대학 문학연구과 문화표현론 비교문학 과정을 이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근현대 일본 문학과 문화를 베이스로 다양한 표상 체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대표 논저로 『아시아의 망령: 귀환자 아베 고보와 전후 일본』(저서), 『사이니치의 정신사』(공역), 『방법으로서의 열린 동아시아』(공저), "Re-nationalizing Repatriated Japanese into Post-War Japan: From Imperial Subjects to Post-War Citizens", "Beyond Nationalism in This 'ERA OF DISASTER': Setting a New Relationship for a Sustainable Future",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 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일본사회의 외국인 '혐오'와 혼혈: '국제아', '더블' 담론의 이분법과 '아시아계' 혼혈", "우라사와 나오키의 과거 '드러내기': 《몬스터》에 나타난 서사 구도와 작화 전략", "『플루토』가 보여주는 '착시' 세계: 로봇이 상상한 미래 사회"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https://doi.org/10.29154/ILBI.2024.30.158>

1. 들어가며: ‘바라보이는’ 위치에 선 천황가

이 글의 문제의식은 근래 일본에서 왜 그렇게까지 천황가의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지, 아주 원초적인 의문에서 시작한다. 같은 여성으로서 불쾌하게 혹은 시대착오적으로 느낄 정도로 노출되는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비록 천황가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이해의 선을 넘어 일본사회 전체가 관음증적 병리 현상에 빠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이런 일본사회의 천황가 여성에의 관심을 천황제의 역사성(보편성)이나 특수성이라는 ‘위에서부터의 시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대중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느낀 이유다.

일본 패전 이후 천황가의 황후 이미지에 주목한 가와니시 히데야는 황후의 역할론이 일본 천황제 연구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고, 특히 고준(香淳, 久邇宮良子, 1903~2000) 황후의 ‘인간적’ 모습이 대중에게 ‘어머니’이자 ‘부인’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깊이 자리 잡으며 상징천황제로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말한다.¹ 패전 이후 언론에서 천황과 황후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음을 고려할 때, 롤모델로서의 황후 이미지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이전까지 천황 중심의 천황가가 대중에게 이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 이는 전후 천황가의 변화에 있어 황후의 역할이 대중의 지지와 관련해 중요했음을 말하고, 또 근래 ‘헤이세이 황실 붐’의 주역 마사코 황후(小和田雅子, 1963~)에 대

1 河西秀哉, 「敗戦後における皇后イメージ」, 『女性学評論』27, 神戸女学院大学女性学インスティテュート, 2013, 21~39쪽.

2 井上輝子, 「女性と天皇制(18完)-マイホーム主義のシンボルとしての皇室」, 『思想の科学』92号, 1978;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筑摩書房, 2001(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教育』, 黎明書房, 1981; 片野真左子, 「近代皇后像の形成」, 『近代天皇制の形成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1996; 早川紀代, 『近代皇后制国家とジェンダー』, 青木書店, 1998; 原武史, 『皇后考』, 講談社, 2015; 原武史, 『〈女帝〉の日本史』, NHK出版新書, 2017; 加納實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마틴 프리츠·요코 코바야시, 조희진 옮김, 『마사코: 일본 왕실에 갇힌 나비』, 눈과마음, 2005; 양수현, 「상징천황제와 황실 여성의 역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권숙인, 『젠더와 일본사회』, 한울, 2016.

한 ‘오래된’ 관심 역시 상징천황제와 일본 대중의 상호성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준 황후가 ‘그러난’ 이상적 모습은 전범재판을 앞두고 ‘인간 선언’이라는 아이러니한 글과 함께 신격을 부정하고, 일본국헌법(신헌법) 반포로 ‘상징’이 되어 버린 쇼와 천황의 정치성을 보완해 준 장치에 머물렀다. 앞서 고준 황후의 표상을 분석한 가와니시 히데야도 그녀가 ‘신일본’의 출발까지는 기능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형적 퍼포먼스나 이미지가 고리타분해 비난을 샀다고 지적한다. 신일본의 출발은 미치코(正田美智子, 1934~) 황태자비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³ 고준 황후의 인간적 모습은 상징이 된 천황의 인간적 선택을 지지하는 현모양처의 표상으로, 패전 이전부터 연출되어 온 천황의 ‘페어로서의 황후상’⁴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천황제는 이렇게 ‘인간적’인 천황과 황후의 이미지를 전제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상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인간적인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대중 친화성을 얻어 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신헌법에서 요구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더 극적인 기획이 필요했다. 평민 출신 황태자비의 탄생이 그것으로, 드디어 황실과 국민이 혈연으로 연결되며 국민 통합을 이룬 ‘열린 황실’이 성립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1대 평민 출신 황태자비 미치코가 등장한 이후로 천황가는 황실 여성을 매개로 대중적 친화성을 강고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모두 그녀에게 ‘신일본’의 미래를 기대했고, 이후 이어지는 미치코 황태자비의 모범적인 모습들이 미디어에 대거 소개되면서 대중의 환심을 샀다.⁵ 이를 ‘대중천황제’로 명명하며 과거 근대(절대)천황제와는 질적으로 대립하는 형태로서 상징천황제가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기도

3 河西秀哉, 「敗戦後における皇后イメージ」, 22쪽.

4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5 河西秀哉, 「戦後社会と象徴天皇制: 明仁天皇・美智子皇后に焦点をあてて」, 『歴史評論』 784, 歴史科学協議会, 2015, 53~64쪽.

했다.⁶

그리고 2대 평민 출신 황태자비 마사코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헤이세이 황실 붐’을 일으키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마사코의 황실 생활은 ‘부적응과 시련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마사코의 시련’에 대해 권숙인은 황위 후계자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남계 왕조시대’의 논리에 따른 천황제의 강한 남성중심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이에제도’와 일본의 극장국가로서의 천황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적했다.⁷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을 천황가의 극장성과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와 관련해 조망한 권숙인의 분석은 본 연구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권숙인의 논의에 따르면, 과도할 정도로 마사코의 일거수일투족을 노출하며 사생활을 스캔들화하는 이유는 일본 황실에 부여된 ‘제한된 극장성’ 때문이다. 아직도 황실을 둘러싼 신비주의, 폐쇄성 등 ‘신성한’ 계보와 연결된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신화를 고수하면서도 세속 권력은 부정된 제한적 상황이 과거 근대천황제와 비교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⁸ 또 권숙인은 마사코의 시련이 일본사회에서 천황제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하였다. 황실의 핵심 역할이 극장성에 있지만 많은 도전과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유구한 전통’과 ‘열린 황실’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일본 천황가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⁹

그렇지만 근대(절대)천황제는 실제로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세

- 6 미디어와 결합한 천황제, 즉 ‘대중천황제’라는 말은 松下圭一(『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5), 中央公論新社, 1959, 30~47쪽)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이후 이 개념이 1989년에 『중앙공론』(104권 3집)에 재등장하고 연구서에도 소개되며(天野恵一 編, 『大衆社会と象徴天皇制』, 社会評論社, 1995, 80~98쪽), 점차 확산되었다. 原武史·吉田裕 編, 『天皇·皇室辞典』, 岩波書店, 2005, 278~281쪽; 大石裕, 「戦後日本の大衆社会論と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再考」, 『法學研究: 法律·政治·社会』 90(1),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17, 1~26쪽; 송병권, 「근대 천황제 국가와 역사학: 근대천황제의 양면성과 관련하여」, 『비교일본학』 36,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6, 65~80쪽 등 참조.
- 7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9호, 서울대일본연구소, 2013, 18~55쪽.
- 8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45쪽.
- 9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54쪽.

속성'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왔다. 1900년대 이후부터 미디어의 황실 그라비아를 비롯해 보도 기사가 세속화, 소비재화 되었고, 이는 신성함을 강조하는 국체 이데올로기와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대중의 황실관이 변하고, 민심과 절대천황제 정책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 무엇보다 근대 일본의 미디어가 상업주의(commercialism), 대중주의(populism)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소비자 대중에 영합한 '세속적' 황실 정보를 유포해 왔다.¹⁰ 다만,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언론 통제 속에서 절대천황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마치 사라진 듯해 보였던 '대중 친화적' 천황제는 미치코 황태자비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다.

미치코 황태자비의 과묵으로 재개념화된 대중천황제는 과거 천황제와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와 대중의 공모 관계를 계승, 혹은 심화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미 전전에서부터 일본의 천황가는 '평민적'이고 친근한 모습, 또 사생활과 가십으로서의 사진, 기사 등이 미디어에 의해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이른바 '스타로서의 황실'을 동경하는 대중에게 소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마사코의 시련을 둘러싼 서사는 천황가와 일본 대중 간의 오래된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이와(令和) 시대의 개막과 함께 마사코는 황태자비에서 황후가 되었고, 이후 그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과거 시련의 핵심이었던 부적응적인 모습은 어려서부터 자유롭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로, 또 황태자비로서 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자질 부족론은 배려심이 깊고 사려 깊어서 소심해 보이기까지 했던 세심한 성격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¹¹ 또 마사코를 궁지에 몰았던 궁내청의 '어른'들과, 마사코와 늘 비교

10 右田裕規, 「戦前期「大衆天皇制」の形成過程」, 『ソシオロジ』 47(2), 社会学研究会, 2002, 37~53쪽. 미기타 히로키는 전후 대중천황제 개념의 확대가 오히려 과거 절대천황제에 대한 오해를 낳고, 또 스테레오 타입화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은 근대 일본에서의 미디어 역할을 천황제 연구자들이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11 友納尚子, 『皇后雅子さま物語』, 週刊文春特別編集, 文藝春秋社, 2020, 18~32쪽.

대상이었던 기코 비(文仁親王妃紀子, 川嶋紀子, 1966~)의 질투와 허영도 이제는 질책의 대상이 되어 입장이 전도되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사실 1대 평민 출신 황태자비 미치코에게도 있었다. 황태자의 배우자로 미치코를 반대했던 황족들의 우려와 고준 황후와의 고부갈등이 미치코의 시집살이로 이슈화되었고, 그런 '시월드의 갑질'을 극복해 가는 미치코의 성장에 대중은 박수를 보냈다. 처음 그녀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테니스 코트의 사랑',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세간의 부러움은 이내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서사로 확장되며 지지를 얻어 냈다. 그리고 고준 황후가 연출하지 못했던 '신일본'의 이미지가 그녀를 통해 선전되었다. 또 무탈하게 황위 계승자를 양성해 내며 미치코 황후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완성되었다. 그런 미치코 황후가 새로운 신데렐라 마사코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겪게 하는 듯했을 때, 대중은 고부갈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습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마사코가 황후의 지위에 오른 지금, 그녀는 선대의 미치코처럼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했을까. 오히려 마사코의 서사는 미래의 천황가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낳으며 확대(지속)되고 있다. 미치코와 마사코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공통된 인식 위에 있지만 둘에 대한 표상 체계는 극과 극이다. 그 차이를 '아들을 낳아' 남계 장자 계승의 전통을 유지했느냐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마사코의 시련은 천황가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마사코의 시련을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대중 인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더구나 대중의 인식 변화는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징천황제에서 천황가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이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권속인은 '인간 선언' 이후 세속화된 천황가의 권위 상실로 인한 천황제의 '인위적' 위기로 보았다. 이 논리대로라면 천황가는 스스로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 탈권력화를 통해 생존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정치적 전략인 것이다. 특히 천황가의 여성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현상도 천황가를 바라보는 눈에 내재한 권력 구도, 즉 ‘바라보는 자’는 권력자이고, ‘바라보이는 자’는 권력에 예속된 자라는 천황가 이슈를 둘러싼 시선의 문제를 드러낸다. 천황가의 권위 상실은 그들 스스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섬으로써 탈정치화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고자 한 천황가의 생존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의 편승은 천황가나 천황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혹은 천황가 이슈를 자본으로 삼는 미디어와 같은 ‘표상 주체’의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본 대중 역시 천황가를 통해 욕망하는 바를 ‘바라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천황가에 투사하며 공모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황가 이슈는 라캉적 해석을 빌리자면, ‘거울 효과’를 통해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며 힘을 발휘한다. 황태자비를 둘러싼 정보들을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서사화’해 소비하고, 또 일본 천황가에 대한 이슈가 황태자비나 황후, 황실 공주들, 즉 여성에게 초점화되어 부각되는 현상도 ‘바라보이는’ 존재로 대상화된 천황가의 위치를 상징하는 표상 체계라 할 수 있다.

대중들이 왜 그렇게까지 관음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려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시선이 일본사회의 젠더 바이어스와 함께 이야기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천황가의 문제가 ‘시선의 주체’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이 글은 천황가 이슈를 ‘시선의 주체’ 문제로 확장해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 기존 대부분의 천황가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언설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표상 주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설명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표상 체계를 수용하는 해석자로서의 ‘시선 주체’의 심연에 접근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중과 천황가의 ‘관계 맺기’라는 소통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라캉의 개념들¹² — 응시와 판타지, 욕망하는 주체(대상_a) — 을 전유해 보겠다. 다만, 이 글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선’으로서의

12 박규태의 『일본정신분석』(이학사, 2018)은 이 글의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라캉의 개념들에 관해서는 위 저서의 상세한 설명(29~264쪽)을 참고해도 좋다.

대중적 욕망을 읽어 내는 데 있어 미디어의 표상이 중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와 대중의 시선을 정확히 분리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글은 어디까지나 관객, 독자와 같은 수용자, 해석자로서의 ‘대중’이라는 개념 위에서 그들의 욕망을 투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의 ‘미디어’라는 다소 제한된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함을 밝혀 둔다.

2. ‘마사코 황태자비’ 서사의 시작

1) 기표로서의 ‘마사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 표현은 시선의 권력에 내재한 억압의 본질과 현 사회의 젠더 이슈를 잘 반영한다. 특히 “전통적 철학 체계 안에서 남성은 ‘보는’ 쾌락을 가지면, 여성은 ‘보이는’ 대상의 수동적인 역할로 파악”¹³되는데, 이러한 시선 문제는 욕망을 포함하여 ‘응시’ 개념과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 중심의 관음증적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응시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선의 주체는 영화의 관객처럼 사건을 통제하는 매력적인 남성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감정을 이입한다. 영화 스크린을 통해 관객이 대상의 삶을 은밀하고 깊숙이 들여다보는 구조는 시선에 내포된 권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데, 응시는 이런 점에서 관음증적 시선과 유사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주체의 시선은 사실에 대한 몰인식, 곧 허구적 공간에서의 편협된 인식에 머문다. 근대 이후 ‘근대적 시각성’으로서 원근법이 성립되고 시각적 우위성이 더욱 강화되어 왔지만, 원근법은 인간의 눈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점으로 환원시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회피하게 만들었다.¹⁴ 근대적 시각성의 메커니즘은 곧 드러내기와 은폐로, 응시에 담긴 권

13 오진희, 「시선의 권력, 그리고 여성관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25쪽.

14 김정은·김갑숙, 「에곤 실레의 자화상 분석: 라캉의 응시 개념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94호, 한

력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푸코 역시 ‘본다’는 시선의 행위를 감시적 응시와 규범적 응시를 통해 부여된 사회 권력의 문제로 다루었다.¹⁵ 이는 개인 간의 권력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권력을 집행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라캉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타자의 응시가 그것으로, 시선의 주체가 말 그대로 대상(기표)에게 사로잡혀 표상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응시는 기표로부터 오는 시선, 기표가 주체에게 돌려보내는 시선을 말한다.

라캉의 응시 개념이 중요한 것은 시선의 주체와 기표의 관계가 단순히 욕망의 구도를 넘어 끊임없이 ‘지연되는 서사’¹⁶를 낳기 때문이다. 시선 주체는 기표가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추구하지만,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응시는 시선 주체의 ‘환상 가로지르기’에 의해 판타지를 만들기 때문이다.¹⁷ 그리고 욕망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선 주체가 기표(대상,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타지’는, 주체가 어떻게 기표를 욕망하는지 보여 준다. 그래서 응시는 자칫 ‘감시’와 착각되기도 한다. 특히 “감시가 사회적 차원을 떠나 사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전락할 때”,¹⁸ 판타지는 관음증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사회에서 마사코 황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친 관음증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한 천황가와 일본 대중이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떠한 법칙 혹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응시와 욕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연(différance)으로서의 판타지는 ‘마사

국미술치료학회, 2018, 6쪽.

- 15 미셸 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3.
- 16 로라 멀비는 ‘지연된 서사’와 ‘사색하는 관객’ 개념을 제안했다. 로라 멀비, 이기형·이찬욱 옮김, 『1초에 24번 죽음』, 현실문화, 2007, 226~253쪽.
- 17 라캉은 환상공식(판타즘, $S \diamond a$)을 통해 대타자의 욕망(기표)에 대한 주체의 반응을 설명한다. 주체가 자신의 환상을 깨닫고 그것을 구조로서 각인하는 작업을 경유해 동일시와 금기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욕망을 틀 짓는 환상을 재구성한다고 말한다. 이를 ‘환상 가로지르기’라고 하는데, 이는 곧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분석가)가 대상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둘의 관계는 ‘환상 공식’을 만들어 낸다. 자크 라캉, 홍준기 외 옮김, 『에크리』, 새물결출판사, 2019, 658~659쪽.
- 18 이택광, 「관음증 시대의 욕망」, 『실천문학』, 132호, 2019, 144쪽.

코의 시련'을 현대판 신데렐라 서사로 소비하는 대중들의 천황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2) '신데렐라' 판타지의 심연(深淵)

콜레트 다울링(Colette Dowling)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여성이, 막연히 남성에게 보호되어 살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적 의존 상태'를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¹⁹ 일종의 '구원 신화'로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개발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의 여성들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구원 신화에서 자기 성장 서사로 탈바꿈시켰다. 과거 구원 신화에서 신데렐라의 삶은 중산층 현모양처의 이미지로 유포되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면, 수많은 알파걸(alpha girl)²⁰이 등장하며 자신의 일과 삶에 충실한 자존감을 보여 주는 '네오 신데렐라'가 등장한 것이다.²¹ 과거 신데렐라 이야기가 구원 신화에 그쳤다면, 근래 신데렐라 스토리는 여성의 욕망과 선망을 자극하며 '신데렐라 판타지'로 거듭나고 있다. 따라서 신데렐라의 인생 역전을 여성의 성장 서사로 받아들이며, 요정의 요술로 드레스와 유리 구두를 얻어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신하고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가 되는 극적인 삶을 온갖 노력으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해 행복을 성취하는 성공적 여성의 삶으로 여긴다.

그러나 콜레트 다울링의 '네오 신데렐라' 역시 신화라는 영역을 판타지라는 요소가 대체한 구원 신화의 변용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요정의 요술 대신 자기 노력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성장 서사의 탈을 쓴 '구원 판타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판타지는 망상과 꾸며 낸 이야기 사이에 존재한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무의식에서 솟아난 내용에

19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20 학업이나 운동, 인간관계,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을 뜻한다. 그만큼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가졌다.

21 콜레트 다울링,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75~80쪽.

의식이 압도당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대치할 때 거기에서 새롭게 탄생' 한다.²² 결국 현실에서 여성들의 한계를 내면화한 '유리천장'이 곧 '네오 신데렐라' 서사의 본질인 것이다.²³

오와다 마사코는 이렇게 '네오 신데렐라'를 원하는 이른바 일본 알파걸들의 롤모델로 등장했다. 아버지의 소련대사관 서기관 부임, 하버드대 국제법 객원교수 겸직 등으로 유소년기부터 일본 외의 국가에서 성장기를 보낸 마사코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중간중간 귀국해 일본에서 초중학교를 보내기도 했지만, 일본에서의 학교생활 역시 마사코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임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스포트볼에 취미를 두고 선수로도 두각을 보이는 등 어느 곳에서건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더욱 노력해야 했다. 이런 성장 배경이 마사코의 자기 주도적 성격과 리더십에 영향을 주었다. 고등학교부터 보스턴에서 생활하며 하버드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한 그녀는 졸업 후 바로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다. 뭔가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려서부터의 외국 생활이 국제 친선과 외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 그녀는 도쿄대학 법학부에 편입하기도 하는데, 그해 바로 외교관 시험(外務省試験)에 합격하였다. 이때 마사코는 촉망받는 여성 외교관(外交官の卵)으로 각종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동시에 황태자비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마사코의 성공적 이미지는 단순히 부유한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전후 복원'을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1963년에 그녀는 태어났다. 스스로 노력하면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네오 신데렐라'의 자기 성장 서사가 현실적으로 부흥 신화를 이룩한 '전후일본'의 성장과 겹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사코가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1986년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실시된 해로, 그

22 가와이 하야오, 햇살과나무꾼 옮김, 『판타지 책을 읽는다』, 비룡소, 18~19쪽.

23 박이진, 「일본의 황후 표상과 젠더: 천황가의 이미지 정치와 황후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489~512쪽.

녀의 합격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황태자비의 후보로 주목을 받을 수 있던 원인도 당시 여성 고용을 PR하기 위한 외무성의 퍼포먼스 때문이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라 사회진출을 한 제1세대로서 여성 인권 신장의 상징처럼 홍보된 것이다. 이렇게 마사코의 성공 서사는 일본 부흥 신화와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사회상과도 적절히 부합되어 탄생한 것이다.

이후 외무성 경제국에 입성해 옥스퍼드 대학원으로 연수를 간 동안, 일본에서는 마사코 황태자비 후보 기사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²⁴ 1992년에 처음으로 황태자가 프로포즈했을 때 마사코는 거절해도 되는지 반문했는데, 이때 황태자가 “외교라는 분야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이나, 황족으로 일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것은 다르지 않다.”²⁵고 한 말은 유명하다. 외교관으로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 그녀의 신념을 잘 보여 주는 에피소드였다. 그리고 1993년 연초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마사코, 황태자비 내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려한 경력의 전문 커리어우먼이라는 수식어가 마사코를 대표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현대 일본 여성의 우먼파워를 상징하는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도 노력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자기 성장 서사는 자기주도성과 강한 성취욕으로 설명되는 일본 ‘네오 신데렐라’ 판타지의 서막을 보여 준다.²⁶

그런데 판타지는 환상적인 요소를 가진 세계에서 그 세계에 있는 신비한 법칙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²⁷ 마사코의 경우 천황가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것을 판타지의 성립과 대비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 판타지’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창조된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를 말한다. 하이 판타지를 창작할 때는 현실 세계와 구별되는 가상 세계와 설정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문화나 문물, 역

24 「独占スクープ 才媛外交官・小和田雅子さん」, 『週刊女性』, 1988. 1. 14.

25 마틴 프리츠·요코 코바야시, 조희진 옮김, 『마사코: 일본 왕실에 갇힌 나비』, 눈과마음, 2005, 69쪽.

26 香山リカ, 『皇室女子: “鏡”としてのロイヤル・ファミリー』, 秀和システム, 2019, 20~22쪽.

27 진홍식·박애진, 『판타지』, 북바이북, 2015, 14~15쪽.

사나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 세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²⁸ 국토 생성(國生
 み) 신화나 건국 신화를 시작으로 1대 천황의 등극까지, 일본 천황가의 계보
 는 하이 판타지의 세계 그 자체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하이 판
 타지를 이루었던 근대천황제의 세계관이 상징천황제를 계기로 변했다는 점
 이다. 하이 판타지에서 ‘로우 판타지’로 내려온 것이다. 로우 판타지는 하이
 판타지와 달리 현실 세계를 주된 무대로 하는 이야기를 가리킨다.²⁹ ‘인간
 선언’으로 천황가가 ‘신화나 전설에서 말하는 가공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며 신격을 버리고 상징천황제로 전환한 것은 이후 현실계를 무대
 로 펼쳐질 천황가의 위상 변화 그 자체였다.

그런데 상징천황제는 한 가지 더 다른 판타지 요소가 중첩된 세계를 지
 향했다. 바로 ‘차원 이동 판타지’이다. 차원 이동 판타지는 현실 세계의 주
 인공이 환상 세계로 향하여 모험하는 이야기이다.³⁰ 많은 판타지가 일상에
 서 환상 세계로 향하는 구조를 갖기도 하지만, 차원 이동 판타지는 본래 주
 인공이 살던 세계와 환상 세계가 동떨어진 세상이며 주인공이 두 세계를 마
 음대로 오가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열린 황실’을 연 미치코 황태자비
 는 현실계의 여주인공이 환상 세계로 편입되는 차원 이동 판타지의 시작이
 었다. 차원 이동을 한 미치코가 대중들에게 현대판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는
 서사로 신데렐라 판타지를 성립한 것이다.³¹

그런데 이러한 판타지는 신비한 법칙, 특수한 법칙에 의해 성립된 세계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법칙이란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남

28 전홍식·박애진, 『판타지』, 20~21쪽.

29 전홍식·박애진, 『판타지』, 22쪽.

30 전홍식·박애진, 『판타지』, 23쪽.

31 전후 대중천황제의 개념을 근대천황제에 적용해 1900~1910년대를 대중천황제의 전환기로 파악한
 미기타 히로키의 연구를 보면, 전전의 쇼와 천황의 동생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秩父宮雍仁)의 약
 혼자 마쓰다이라 세쓰코(松平節子)가 신데렐라 스토리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 평민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디어는 세쓰코를 ‘평민의 딸’로 과장해 강조하며 황족과의 결혼을 통해 극적인
 사회 상승을 꿈꾸는 수많은 여성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는 가부장적 환경을 억압으로 느낀
 여성들이 수천만 평민 남성들의 신분적 상위에 군림하는 황후 혹은 천황가 여성들에게서 구원적 희
 망을 찾았기 때문이다(右田裕規, 『戦前期『大衆天皇制』の形成過程』, 『ソシオロジ』 145, 2002,
 37~53쪽; 右田裕規, 『戦前期「女性」の皇室観』, 『社会学評論』 55(2), 2004, 132쪽).

계 왕조시대의 남성중심주의 원칙이다. 마사코의 신데렐라 서사가 미치코와 달리 미완성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사코가 지금까지 살던 현실계와 동떨어진 세계로 차원 이동을 한 것은 결혼과 동시에 ‘성’(姓)이 없는 존재가 되면서이다. 1993년 6월 9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거행된 결혼식은 미치코 황태자비 이후 다시 한번 황실과 국민을 ‘연결’(結びつき)하는 이벤트였다. 그리고 황실 족보에 마사코는 ‘나루히토 친왕비(親王妃) 마사코’로 등록되며, 오와다(小和田)라는 성씨를 박탈당한다. 메이지 이후 모든 일본인이 사용하게 된 성씨를 천황가를 비롯해 일본 황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아라히토가미(現人神)는 호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사코의 결혼식이 황실과 국민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일로서 선전되었지만, ‘연결’이라는 포인트가 실제 마사코의 입장에서는 ‘성씨 없는 존재’가 되어 더는 자신이 살던 현실 세계를 오갈 수 없게 된 주박(呪縛)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마사코는 혹독한 통과의례(rite of passage)³²를 치른다. ‘적응 장애자’ 혹은 요양, 치료가 필요한 ‘환우’라는 표현은 결혼 직후부터 황후 등극 이전까지 마사코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였다. 그 원인은 대개 황통(皇嗣)에 대한 압박으로 이야기한다. 임신을 위한 치료 계획이나 계류 유산, 회임 소식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견뎌야 했던 마사코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회임 보도 이후에도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아이의 성별을 들먹이며 아들을 낳기 위해 다음 임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실제 “하나 더 낳자, 국민도 원한다”는 궁내청의 압박은 물론, ‘마사코 공격(bashing) 사건’³³ 이후 마사코는 “딸을 낳은 비는 소용없구나.” 하는 자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계속된 건강이상은 ‘정신적 병’이 원

32 한 개인이 한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의례다. 이 글에서는 반 제넵(Arnold Van Gennep)의 개념에 따라 개인이 분리-전이-재통합의 과정에서 세속적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지위 변화를 일으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사용했다.

33 2003년 10월 15일, 멕시코 대통령 부부 초청 만찬에서 마사코를 소개할 차례에 기코 비를 소개해 멕시코 대통령도 당황했다고 한다. 이후 마사코는 대상포진에 걸리는 등 건강이상설과 함께 11년간 궁중 만찬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인이라는 소문으로 확장되고 결국 마사코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다.

그러나 마사코의 통과의례가 후사를 잇는 일에만 집중된 일이었다면 기코 비가 히사히토 친왕을 낳은 뒤 황손에 대한 부담을 버려도 되었을 것이다. 마사코의 시련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일본 대중들, 특히 여성들이 ‘마사코파’와 ‘기코파’로 나뉘어 각자의 현실을 투사해 동정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 마사코를 향한 판타지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2009년 8월호 『부인공론』(婦人公論)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마사코파’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1세대인 커리어우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코파’는 현모양처가 되어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전업주부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다. 마사코파와 기코파의 대치는 지금도 여전하다. 최근 2023년 6월 기사에서도 ‘왜 황실에 1남 2녀를 낳아 준 현모양처가 미움을 받는가’라며 여전히 마사코 황후와 기코 비가 비교되는 상황을 다루었다.³⁴ 기코 비는 “취직을 하지 않고 결혼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1남 2녀를 황실에 낳아 주고 건강, 학업, 진학, 공무에 성실한 그야말로 성공한 ‘교육 맘’의 전형”이고, 마사코와 같은 커리어우먼들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해 전업주부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의 과도한 배려를 꺼린다. 또 그녀들이 자식의 진학에 과한 열의를 보이는 것은 ‘교육 괴롭힘’이라는 생각을 한다.”³⁵라는 것이다.

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마사코로 대표되는 커리어우먼에 대한 시선을 잘 보여 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 황태자비 시절에도 마사코의 시련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여성의 불행’으로 치부되었다.³⁶ 심지어 자신

34 八幡和郎, 「なぜ皇室に1男2女をもたらした「良妻賢母」が嫌われるのか…紀子さまを攻撃する人たちの“本音”」, 『PRESIDENT Online』, 2023. 6. 29., <https://president.jp/articles/-/71092?>(최종 검색일: 2023. 12. 12.).

35 八幡和郎, 「なぜ皇室に1男2女をもたらした「良妻賢母」が嫌われるのか…紀子さまを攻撃する人たちの“本音”」.

36 「雅子妃の人生「勉強が出来すぎる女性の不幸」」, 『週間現代』, 2013. 6. 25.

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은 남편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며 마사코가 일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았다.³⁷ 당시 마사코가 훼손한 일본적 가치는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지탱해 온 현모양처, 곧 선대 미치코 황후가 이루어 놓은 부덕(婦德)의 가치관이었다. 아이코 공주에 대한 마사코의 교육관도 과잉보호라는 질책을 넘어 천황가의 존엄을 실추시켰다며 과대하게 황후의 자질론까지 확장되는 것도 그 이면에 현모, 자모에 대한 여성 역할론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⁸

그런데 근래 기코 비에 대한 비방을 현모양처에 대한 비난이자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라며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코 비를 희생양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 저변에는 마사코뿐 아니라 미치코에 대한 대중들의 심연(深淵)이 있다. 미치코나 마사코 모두 과거 현대판 신데렐라에 비유되었지만, 지금 이 둘은 ‘신데렐라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엘리트에 최상류층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코 비도 좋은 집안 출신이지만 이 둘에 비하면 임팩트가 약하고, “미치코 전하처럼 여배우같이 빛나는 미모나 자태도, 마사코 전하처럼 화려한 학력이나 커리어도 없기”³⁹ 때문에, 이전에 마사코 황태자비에게 향했던 질투가 ‘약자’인 기코 비로 향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기코 비가 현모양처의 모델을 시어머니로 삼고 그녀처럼 ‘교육 맘’의 표상이 되어 온전한 가족 서사를 완성하고자 했던 노력도, 이제는 미치코 상황후를 흉내 내려는 아류로서 야유받는다. 결국 마사코 황후든 기코 비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재적’ 여성상에는 부족한 것이다.

마사코파와 기코파에 투사된 여성들의 욕망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일본사회에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판타

37 「皇太子さま・雅子さま結婚20年」, 『読売新聞』, 2013. 6. 9.

38 2010년 3월~2011년 9월 사이, 아이코가 등교 및 외부 학습에 나갈 때 마사코가 동반한 것을 두고 ‘가방모치’(鞆持ち), ‘이상한 모녀관계’라며 맹비난이 일어났다. 심지어 마사코 어머니의 가정교육까지 구설수에 오르며, 애초에 부적절한 가정 환경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39 「皇太子さま・雅子さま結婚20年」, 2쪽.

지 세계를 보여 준다. 마사코파가 이루지 못한,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투사라면, 기코파는 억압된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해방을 원하는 여성들의 방어기제적 작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망(願望)이 모두 미치코를 기준으로 이상화(理想化)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사코 황후, 그리고 근래 기코 비를 대상으로 한 ‘거울 이미지’의 심연에 미치코에 대한 판타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기코 비에 대한 옹호는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시도하는 예고가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내는 공격성과 유사하다. 마사코 황후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불러일으킨 기코파의 위기감이 집단적 행동으로 확장되며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입장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기코 비가 기죽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더 강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대중의 응원은 앞으로 주류 대 비주류의 대치처럼, 기득권 대 소외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부유한 성장 환경에 대한 부러움, 성공한 여성에 대한 동경, 스타와 같은 존재에 대한 응원 등 그 심연에는 일본사회에서 이상화된 ‘완벽한’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러한 이념이 내면화(체화)된 결과 ‘슈퍼우먼’을 동경하면서도 질투하는 모순된 심리작용이 놓여 있다. 특히 ‘알 수 없는’ 모순된 심리는 온전한 가족 서사를 완성해 내고 은퇴한 미치코와 같은 존재를 다시금 소환하며, 근원적으로 일본사회에 내재한 구조화된 차별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천황가의 황후들이 보여 주는 서사가 비록 대중의 욕망과 환상을 투여한 것이지만, 현실 세계의 전도된 세계로서의 판타지는 미묘하게 배척성을 띠면서 반대로 현실의 리얼리티를 부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3. ‘마사코 황후’ 서사의 상업화

1) 공무 수행과 황후의 자질론 재조명

권력 구도에서 예측 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이다. 라캉

과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근대의 권력 체계에서 ‘시선’의 문제를 피력하고 있는 박정자는 흥미로운 논의를 내놓았다. “내가 남의 시선을 느낄 때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평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이는’ 대상, 즉 사물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보임을 당할 뿐일 때 더욱 그러하다.”⁴⁰ 응시와 같은 시선의 문제는 일방향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권력 체계를 떠 관계 맺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정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예속 관계는 노동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⁴¹ 노예는 주인에 대한 봉사만으로 자립성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성실한 노동으로 의식의 자립을 고취함으로써 주체적 존재로 거듭난다. 또 예속을 지배로 변형시키며 자유로운 존재, 욕망하는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선의 권력에서 ‘바라보이는’ 대상은 주체성을 상실한 사물화된 존재로, 욕망이 거세되어 예속된 노예와 같다. 따라서 노예가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주체성을 찾아가듯이, 시선의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는 노동 자체가 주체적 존재를 꿈꾸는 대상(노예)의 욕망, 곧 자립에의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기고 하다. 다만, 마사코의 경우 노동, 이른바 ‘공무’는 자신의 욕구뿐 아니라 타자, 대중의 욕구도 포괄한다.

마사코를 향한 자질론을 포함해 황후의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도 이렇게 ‘시선의 권력’ 문제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후 상징천 황제 이후 황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대로 천황제와 관련한 연구로부터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리스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⁴² 천

40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22, 33~69쪽.

41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68쪽.

42 진구 황후(神功皇后)에 관한 연구는 제외했다. 검색 결과 진구 황후를 둘러싼 일본 역사학계나 국문학계의 논의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구 황후의 실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논의가 정한론과 같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실존 인물로서의 황후의 모습을 검토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황제 기원 신화와 함께 황후의 성립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⁴³ 황후가 지은 와카에 대한 감상과 소개, 그리고 ‘천황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나’를 보여주는 사례로 황후와의 관계, 황후의 역할이 거론되었다.⁴⁴ 1910~1930년 시기에 등장했던 황실 일상에 대한 기사는 전쟁기간 동안 통제되었다가 1950~1951년을 기점으로 부인 잡지에 재등장하게 되는데,⁴⁵ 데이메이(貞明, 九条節子, 1884~1951) 황후 서거를 계기로 황후의 일대기와 창작 와카집, 그리고 추모글들이 제법 간행되었다.⁴⁶ 특히 데이메이 황후가 나병 환자들의 구제 사업에 힘썼음을 칭양하는 글들이 황후의 치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은 천황에게 있었고, 황후는 ‘자애와 부덕을 겸비하고’ 천황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⁴⁷

미치코 이야기를 시작으로 ‘황후학 수업’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⁴⁸ 그야말로 미치코가 일으킨 ‘파문’은 다양한 소재로 다루어졌는데, 개인의 사생활에 머물지 않고 천황가의 사적 공간이 미치코의 이야기와 함께 오픈되었다.⁴⁹ 이후 미치코를 며느리로 맞이한 ‘인간’ 황후(고준 황후)의 행복을

43 赤松啓介, 『天皇制起源神話の研究』, 美知書林, 1948.

44 秋月俊一郎, 『よみもの天皇紀: あるひは「天皇がいかに人間적であつたか」といふ話』 中巻, 人民社, 1949; 小野昇, 『天皇の素顔』, 双英書房, 1949.

45 『主婦と生活』(主婦と生活社), 『婦人倶楽部』(講談社) 등의 여성 잡지에서 다루는데, 초기에는 주로 왕자, 공주들과의 추억이나 천황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다. 그리고 1954년 이후부터 ‘인간적’ 황후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황후의 생일, 복장, 일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第五十一回の御誕生日をお迎えになる皇后さま」, 『主婦と生活』 9(3), 主婦と生活社, 1954, 19~21쪽; 「皇后さまの魅力」, 『婦人生活』 9(3), 婦人生活社, 1955, 106~113쪽; 福田清人, 「国母陛下の辿られし道 皇后さま物語」, 『婦人生活』 10(3), 婦人生活社, 1956, 98~107쪽 등 참조.

46 大日本蚕糸会 編, 『貞明皇后』, 大日本蚕糸会, 1951; 宮内庁 編, 『貞明皇后大喪儀写真帖』, 宮内庁, 1951; 佐佐木信綱, 『貞明皇后御歌謹解』, 第二書房, 1951; 昭和天皇, 『みやまきりしま: 天皇歌集』, 毎日新聞社, 1951; 野口正造, 「貞明皇后と救癩事業」, 『生命保険協会会報』 34(1) 1951, 64~66쪽; 網脇竜妙, 「貞明皇后と救癩事業」, 『法華』 38(2), 1951, 16~22쪽; 田代安子, 「癩者の友: 貞明皇后」, 『声』 887, 聲社, 1951, 34~37쪽; 武者小路公共, 「貞明皇后の祖国愛」, 『総合文化誌』 9(4), 1956, 84~88쪽.

47 萩萩月, 「天皇陛下を語る: 日本人の魂に捧ぐ 訂」, 『愛花書院』, 1953, 203~303쪽.

48 주간 요미우리에서 거의 특집으로 미치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皇后学修業」에明け暮れる今後, 『週刊読売』 17(55), 読売新聞社, 1958, 31쪽; 「皇后の座(インサイド・レポート): 美智子さんを待っている生活とお仕事」, 『週刊読売』 17(56), 読売新聞社, 1958, 14쪽; 「皇后のデザイナー: ミッチー・スタイルが投げた波紋」, 『週刊読売』 17(58), 読売新聞社, 1958, 11~15쪽; 「その後の正田美智子さん 皇后学をまなぶ優等生」, 『婦人生活』 13(3), 婦人生活社, 1959, 118~122쪽.

49 毎日新聞社図書編集部 編, 『天皇家の生活』, 毎日新聞社, 1963. 집안에서 와후쿠를 입고 신문물을 읽는 황후의 모습을 비롯해 연못을 둘러보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등이 실물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천황가의 변화로 소개하면서,⁵⁰ 역대 황후에 대한 소개가 등장한다. 비록 다이쇼의 데이메이 황후와 메이지의 쇼켄(昭憲, 一条勝子, 美子, 1849~1914) 황후에 대한 소략한 소개지만, 그녀들이 난세를 ‘황후 혹은 황태후’로서 어떻게 보냈는지, 교육과 양잠업, 구빈 활동과 같은 공무와 관련해 소개하고 있다.⁵¹

미치코는 황태자비 시절 못지않게 황후가 되어서도 ‘신일본’ 건설의 주역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전의 다른 황후들과 다른 수식어가 있다면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미치코 황후의 궁중 민주화 혁명’, ‘국민과 함께하는 신황후’처럼 국민과 황후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며 이른바 ‘신황후’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² 일본 대중의 ‘시선’이 투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궁중 혁명’을 둘러싼 미치코 황후의 파워 게임을 황실가(황족)의 이지메로 다룬다.⁵³ 실제 심인성 실어증에 걸리기도 한 황후 미치코의 고충은 그의 자질론보다는 황족의 괴롭힘으로 이야기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고준 황태후가 서거하고 간행된 『나가코 황태후』(良子皇太后)(河原敏明, 文藝春秋, 2000)라는 추모글이 ‘미치코 황후의 시어머니가 걸어온 길’(美智子皇后のお姑さまが歩んだ道)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내용은 역사적으로 난세를 살아내며 국모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느꼈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부제는 고준 황태후

50 「特集1 美智子さまのお嫁入りで皇室は変わったやさしいお姑さま人間皇后の幸福」, 『週刊平凡』 1(11), 平凡出版, 1959.

51 坊城俊良, 『宮中五十年』, 明德出版社, 1960. 이의 천황과 함께 해외 방문을 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소개되었다.

52 「新天皇・新皇后美智子さま愛のすべて: ご誕生, 世紀のロマンス, そして, ご家族の絆」, 『週刊明星』 32(4), 集英社, 1989, 12~22쪽; 「特集 新天皇, 皇后「みなさんと共に…」で始まった新時代の皇室」, 『週刊読売』 48(6), 読売新聞社, 1989; 「いま国民がいちばん知りたい美智子皇后の「宮中民主化革命」: 「大喪」後の国民と皇室の関係を考える」, 『週刊ポスト』 21(10), 小学館, 1989, 38~41쪽; 「新皇后美智子さま秘録」, 『週刊文春』 31(15-18), 文芸春秋, 1989, 각호 40~44쪽, 34~38쪽, 41~49쪽, 225~229쪽 등 미치코는 황후 등극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주간지에서 다루지고 있다. 아울러 황실가의 괴롭힘을 이겨 내길 응원하는 책들도 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河原敏明, 『美智子妃』, 講談社, 1991; 大下英治, 『慈愛のひと美智子皇后』, 光文社, 1991; 学習研究社 編, 『天皇陛下と皇后さま: 希望に満ちた平成の皇室』, 学習研究社, 1991; 松崎敏弥, 『美智子さまお心のいたみを乗り越えて』, 三心堂出版社, 1993 등 참조.

53 「「宮中革命」美智子皇后のパワーゲーム」, 『週刊ポスト』 22(19), 小学館, 1990, 48~51쪽.

의 독립적 모습보다 그녀가 미치코 황후와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여 주면서 마치 미치코와의 관련성을 부각해서 고준 황태후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미치코 황후의 ‘성혼 40주년’ 혹은 ‘환갑 기념’ 축하 글과 축하 앨범은 고준 황태후에 대한 관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발간되었다.

마사코로 이어지는 관심은 미치코에 대한 기대감을 계승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황실을 열어 갈 두 명의 여성이 앞으로 어떠한 여정을 보일지 주목을 받았다.⁵⁴ 이 글에서 세세히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황후 양폐하’의 해외 친선 방문이나 일본 내의 재난 현장 위문이나 순행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해 왔다.⁵⁵ 미치코가 일본 내의 ‘열린 황실’을 열었다면 마사코가 해외로 연결된 ‘열린 황실’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였다며 등장한 마사코에 대한 비난은 말 그대로 그녀의 자질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사코의 자질론은 역대 황후들의 역할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마사코를 기준으로 황후 3대, 4대를 함께 다룬 앨범이나 앤솔로지가 대거 등장하고, 특히 메이지의 쇼켄 황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125대에 걸친 황후를 총괄한 서적들이 역대 천황과 함께 또는 별도로 간행되기도 하였다.⁵⁶ ‘여제’라는 말을 통해 여성 권력자로서 황후나 비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서를 비롯해 천황가의 여성들이 단순히 천황의 보좌역할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나왔다.⁵⁷ 앞서 미치코의 경우도 ‘황후학’의 포문을 열며 선대 황후들이 수행한 공무의 영역 — 교육, 양잠

54 미치코의 ‘황실 혁명’을 마사코가 이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인다. 松崎敏弥, 『美智子さまと雅子さまの新皇室づくり』, 講談社, 1993; 河原敏明, 『昭和と平成の皇太子妃: 美智子皇后と雅子さま』, 講談社, 1993; 渡辺みどり, 『美智子皇后と雅子妃新たな旅立ち』, 講談社, 1993 등 참조.

55 정부기관지 『官報』의 皇室事項에 실려 있다.

56 대표적으로 歴史読本編集部, 『歴代皇后125代総覧』, Kadokawa, 2014; 『新天皇皇后両陛下 受け継がれる126代の天皇史』, 英和出版社, 2019; 『歴代天皇皇后総覧』, 新人物往来社, 2006 등이 있다.

57 原武史, 『皇后考』, 講談社, 2015; 『〈女帝〉の日本史』, NHK出版新書, 2017(하라 다케시, 박이진 외 옮김, 『여제의 일본사』, 성균관대출판부, 2017); 타카시·フジタニ, 「象徴天皇制の未来について」, 『日本の歴史25 日本はどこへ行くのか』, 講談社, 2003.

업, 구빈 활동 등 — 을 발굴하는 데 영향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할은 천황과 폐어를 이룬 보좌역할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마사코가 불러일으킨 황후의 자질론은 황후를 천황의 보조적 존재에서 독립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함께 황후의 ‘공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실체를 가진 역사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도 ‘바라보이는’ 위치에 선 ‘마사코’라는 기표에 대한 대중의 또 다른 환상이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사의 파편화, 정보화

일반적으로 황후의 소임은 아들을 낳아 ‘남계 장자’ 계승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왔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를 참고해 보면 더 큰 의미에서 황통을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후사를 낳지 않아도 측실(側室)을 두고 황통을 잇는 것도 황후의 역할이지만, 천황이 부재할 때 황후는 직접 여성 천황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다.⁵⁸ 과거 이를 천황의 보좌나 중계(中繼) 역할로 이해해 왔다면, 근래에는 ‘황실 유지’라는 말로 이를 대체해 황후의 ‘공무 수행’으로서 강조한다. 공무란 황실 외교에 필요한 제반의 행사(회견, 만찬, 오찬, 차회 등)를 비롯해 궁중의 의례, 의식, 주요직 임명 등,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천황의 정치영역, 즉 국사(國事)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황후에 대한 공무는 헌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궁내청의 ‘궁중 공무(宮中のご公務)’, ‘천황황후 양폐하의 활동’(天皇皇后兩陛下のご活動)을 보면, 천황의 국사나 의례에 동참하거나 일본적십자 명예총재가 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마사코도 과거와 달리 근래 공무를 클리어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체적으로 아직은 요양이 필요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연하게 ‘정력적으로 국내외 공무에 임하는’⁵⁹ 모습은 이제 마사코 황후의 일반

58 所功, 「歴代の后妃と女帝の役割」, 『歴代皇后125代総覧』, 歴史読本 編集部, Kadokawa, 2014, 8~25쪽.

59 「皇后さま60歳 国内外の公務, 精力的に」, 『日本経済新聞』, 2023. 12. 9., <https://www.nikkei.com/telling/DGXZTS00008200X01C23A2000000/>(최종 검색일: 2023. 11. 30.).

적 모습이 되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부부 동반으로 피난민을 위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여왕의 퇴임식에 초청받고 참석해 처음으로 공무를 완성한(2013.1~4) 것은 그녀의 '성공 체험'으로서 회자된다. 이후 통가 국왕의 대관식에도 참석하고(2015. 7.), 또 일본 국내 양잠소를 견학한(2018. 5.) 이후 마침내 일본적십자사 명예총재 역을 위임받았다. 이때 미치코 황후가 직접 마사코 황태자비를 소개한 일은 좌중을 놀라게 했는데, 마사코를 정식의 차기 황후로 인정한 공식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해 활기를 되찾은 마사코가 2019년 5월 1일 황후로 등극하기 이전, 황태자비로서 마지막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언론의 시선도 변화시켰다.⁶⁰ 환하게 웃는 모습은 물론 휠체어에 앉은 여성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장애아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며 재활훈련을 응원하는 모습은 '마사코 다음'을 선보였다는 평가로 이어졌다.⁶¹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사코 황후의 서사는 미디어를 포함해 상업성에 독점되면서 일본사회에서 마치 상품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그녀의 서사가 서사로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뜻한다. 현대의 정보 과잉 사회에서 '서사의 위기'를 언급한 한병철은 팔리는 이야기 '스토리셀링'(storyselling)으로서의 스토리는 서사로서의 의미보다 파편적인 정보에 가깝다고 말한다. 점차 사람들이 정보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보와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해 받아들이고, 현실 감각으로서의 '현존 경험'이 적어지면서 이야기 공동체가 아닌 소비사회가 형성된다는

60 2018년 여름, 요양차 나스에 있는 저택(那須御用邸)에 머물 때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녀들과 20여 분을 대화한 것은 물론, 저택 내의 취재도 허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해 8대 행계(行啓) 중 5월에 열리는 '전국 '녹음 애호' 모임'(全国 <みどりの愛護>のつどい), 10월 大分に 열린 '국민문화제'(国民文化祭), 11월 도쿄에서 열린 '전국육수제'(全国育樹祭)에도 참석했다.

61 9월 21일에 스미다구(墨田区)의 고령자 시설 '도쿄 세이후엔'(東京清風園)을 위문했을 때, 입소자가 마사코에게 알파카 마스크트를 선물했다. 천황가가 이런 선물을 직접 받은 것도 처음이었는데, 마사코가 카메라를 향해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규슈 북부 지역 호우로 인한 피해지 방문 때에도 휠체어에 앉은 여성의 손을 잡고 대화했는데, 예정 시간을 넘겨 가며 80여 명과 만났다고 한다. 그의 장애아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거나 '가스야신코엔'(粕屋新光園, 후쿠오카현(福岡県) 장애아동을 위한 입소시설)을 방문해 재활 훈련하는 소녀를 응원하였다. 友納尚子, 『皇后雅子さま物語』, 文春文庫, 2019, 500~507쪽.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사는 마치 상품처럼 생산되고 소비된다. 나아가 서사의 상업화는 서사가 가진 의미 체계에서 ‘정치적 힘’을 빼앗기도 한다.⁶²

원래 강력한 의미의 정치적 행위에는 서사가 전제되어 있다. 서사 없는 행위는 임의적 행동이나 반응 정도에 머문다.⁶³ 천황제는 진전부터 천황가의 세속적 모습을 대중이 소비하며 지지 기반을 확보해 온 지배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마사코 황후 서사’는 그러한 절대천황제의 아우라로부터 상징 천황제가 탈아우라화, 탈신비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마사코는 황태자비로 내정된 이후 일본 현대 여성의 표상 체계이자 젠더 이슈 등을 불러일으킨 기표로서 기능했지만, 사생활을 넘어 더 내밀한 성적(sexual)·정신적(mental) 문제까지 오픈되면서 그야말로 대중 앞에 ‘전시’(on display)되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점차 파편화되며 천황가 이슈로서 정보화·상업화되어 왔다. 그 결과 그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관음증적으로 비쳤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근래에는 일본 황족 여성에 관한 인권 논의가 불거지는 한편,⁶⁴ 일본 대중이 천황가의 사생활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 역시 파편화되고 데이터화된 ‘정보’에 대한 선호와 이러한 소통 방식에 도취한 대중의 태도를 보여 준다.

또한 마사코는 특정 상품에 공정무역과 같은 ‘도덕적’ 서사를 씌우듯이 자질론이라는 잣대를 통해 ‘인격’마저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마사코에게 적용되었던 공무 부담은 마사코 서사가 파편화되며 더 이상 서사로

62 한병철, 최지수 옮김, 『서사의 위기』, 다산초당, 2023, 13~26쪽, 130~131쪽.

63 정치적 행동은 서사적 응집성을 전제한다. 아렌트는 “이미 언급한 그리스 정치 개념에서 긴밀한 상호 연결 상태를 갖는 행동과 말은, 사실 둘 다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즉 개별 사건과 원인에서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으로 보이더라도 이야기되기에 충분한 응집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라며 정치적 행위를 이야기와 연결지었다. 한병철, 최지수 옮김, 『서사의 위기』, 129~130쪽 재인용.

64 일본 황족 수 감소로 인한 여성 미야케 창설에 관한 문제도 마사코 황후가 쫓아 올린 이슈의 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삼헌의 논의 「『만세일제』의 주박에 걸린 보수논객들」(『일본연구』 26, 2016, 239~272쪽)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 외 「皇族の人權「議論が必要」「際限ない私的権利の制限は危うい」,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1. 10. 4., <https://www.yomiuri.co.jp/koushitsu/20211004-OYT1T50005/2/>(최종 검색일: 2023. 11. 30.); 「『SOCIETY 難しい』「知る権利」との線引き 「皇室のプライバシー」で議論, 『時事通信社』, 2002. 4. 26. 등 참조.

서 기능하지 못함을 잘 보여 준다. 마사코를 둘러싼 ‘인격부정발언’ 사건이 2004년 5~6월에 파장을 일으키고, 궁내청에서는 마사코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부적격함을 과거 약혼 회장에서 일화를 소환해 문제 삼았다. 약혼 당시 회장에서 마사코의 스피치 시간이 9분 37초로 황태자보다 28초 길었다며 그녀의 인성과 가정교육, 성장 배경을 문제시한 것이다.⁶⁵ 당시 주간지들이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고, 가열된 보도열로 인해 대중에게 역측을 전달하기도 해 미디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다.⁶⁶ 이처럼 마사코의 공적 행보는 애초에 ‘구경거리’처럼 취급되며 그녀에 대한 ‘도덕적 단죄’와 같은 평가들이 이미 잠복해 있었다. 예견된 복선처럼, 초기부터 마사코의 언행, 즉 서사는 “남의 웃음거리가 된 존재, 그리고 바라보고 바라보이는 시선의 비대칭성, 불균형성이 그대로 도덕적 우열의 관계, 혹은 힘의 강약 관계”⁶⁷로 치환되는 구도 속에서 파편화되어 왔다. 그리고 마사코가 황후로서 부적절하다는 자질론은 이후 천황가의 존엄이나 권위와는 거리가 먼 가십으로서 회자되었고, 대중 역시 그러한 가십을 한편으로는 온갖 추측과 비난, 또 한편으로는 동정과 응원의 감정으로 수용하였다. 이른바 ‘마사코의 시련’은 분열되고 해체된 그녀의 서사를 의미하는 징후였고, 그렇게 파편화된 이미지는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음모론(가짜 뉴스)이 확산되듯이 대중에게 소비되어 온 것이다.⁶⁸

그러나 황후의 역할 혹은 자질론을 통해 공무 수행의 성실함을 판단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천황가에게 주어진 공무는 그 역사성이 지금에 와

65 『女性セブン緊急別冊』, 2004. 8. 11.

66 특히 『週刊文春』(文藝春秋)이 주도적이었는데, 마사코를 공격하고 인격모독을 한 주범이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등 보도가 가열되었다. 마사코보다 기코 비가 황후로 더 적합하다는 여론 조사까지 등장했는데, 이후 이에 관해 어느 누구도 마사코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67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82쪽.

68 근래 이슈가 된 ‘탈진실(가짜 뉴스)’ 현상과도 맞물린 사회 전반의 왜곡된 보도 자세는 정치인과 미디어, 기업과 같은 이른바 특정 이익집단의 통제권을 문제 삼는 차원을 벗어나 유희이나 가짜 뉴스에 취약한 대중의 심리 구조에 관한 해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용자 측에서 보면 왜곡된 보도를 인지부조화(편향), 확증편향, 집단동조와 같은 심리적 기제를 필터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불, 김선영 옮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다산북스, 2020, 355~395쪽; 리 매킨타이어, 김재경 번역, 『포스트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두리반, 2019, 167~200쪽.

서 재의미화된 것에 불과하다. 황거(皇居)에서 천황은 벼농사를, 황후는 양잠에 임하는 모습을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마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천황가의 위엄을 소개했다. 그러나 궁중의 양잠은 쇼켄 황후가 1871년부터 시작했고, 벼농사도 1927년 쇼와 천황부터 시작했다. 천황가 126대 중 양잠은 5대, 벼농사는 3대밖에 이어 오지 않은 것이다.⁶⁹ 이를 미치코 황후가 전통과 선례 중에서 인습화된 것은 버리고 점진적 쇄신을 통해 ‘에토스’(魂)를 남기겠다고 선언하며 궁중 개혁과 함께 민간에서 비를 맞이하고, 스스로 자녀를 교육하며, 진재지(震災地)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공적 행보, 즉 ‘황후의 공무’로서 선보였다.⁷⁰ 황후의 공무는 2천여 년의 역사에서 선례가 없던 것으로, 미치코 이후 계속해서 전통으로 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래 마사코가 공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또 황후가 된 지금, 그녀의 공무를 둘러싼 자격론, 역할론은 아무 문제 없이 클리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황후가 된 이후 그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공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마사코 황후의 시대’를 기대하는 시각이 대중에게 다시금 확대되는 듯하다. 하지만 마사코 황후의 역할론을 둘러싼 도덕적 잣대가 다른 형태의 주제로 변형(déplacer)되며 지속되고 있다. 라캉의 이론대로 말하자면, 마사코 황후의 서사를 소비한 대중들은 또 다른 ‘지연된 서사’를 바라보고 있다. 황위 계승을 둘러싼 일본 역사의 재조명과 관련해 ‘여계/여성 천황’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근래 새롭게 등장해 화두인 ‘아이코 천황론’은 마사코 황후의 서사를 이을 새로운 판타지라 할

69 천황의 벼농사에 관해서는 羽賀祥二, 「天皇制と稲作儀礼」, 『史学』 59, 名古屋大学文学部, 2013, 123~148쪽 등을, 황후의 양잠에 관해서는 太田彩, 「皇后陛下のご養蚕とその文化的意義: 皇后陛下, ご養蚕を引き継がれて」, 『日本絹の里紀要』 18, 群馬県立日本絹の里, 2015, 62~70쪽; 岡田尚子, 「正倉院宝物を甦らせた皇后陛下のご養蚕」, 『明日への選択』 235, 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 2005, 30~35쪽 등을 참조.

70 遠藤興一, 「象徴天皇制とその慈恵の性格について」, 『明治学院大学社会学・社会福祉学研究』 140, 明治学院大学社会学会, 2013, 59~119쪽; 近重幸哉, 「なぜ美智子さまの生き方は、全国民を魅了したのか」, 『PRESIDENT Online』, 2020. 3. 20., <https://president.jp/articles/-/34030> (최종 검색일: 2023. 11. 30.).

수 있다.

3) 지연된 서사로서의 ‘아이코 천황론’

레이와 개원 이후 1주년을 앞두고 교도통신에서 실시한 천황가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천황가에 관한 관심이 75%를 웃돈다. 천황에 대한 ‘친숙함’도 이전 천황 때보다 높아졌다. 천황과 황후에게 기대하는 활동, 즉 공무에 관한 순위도 있다. 1위가 ‘해외 방문이나 외국 빈객 접대 등 국제 친선’인데, 천황의 경우 56%, 황후의 경우 58%가 이 답을 선택하였다. ‘지진피해 지원’이 뒤를 이었다.⁷¹ 이 여론 조사의 주된 항목은 사실 ‘여계/여성 천황’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점검한 것이다. 여론 조사가 진행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시 정부에서는 현 천황의 남동생 후미히토(秋篠宮文仁親王, 1965~) 친왕(왕세자)가 ‘황사를 이을 의례’(立皇嗣の礼)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황위 계승책을 논의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예식이 연기되고, 여계/여성 천황을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는 형세였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천황 85%, 여계 천황 79%의 찬성률이 나왔다.⁷² 레이와 개원 당시 여계/여성 천황에 대한 찬성이 61.9% 정도였음을 감안하면,⁷³ 확실히 국민의 인식은 여계/여성 천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고이즈미 정권 때 가장 뜨거웠던 천황가 이슈 ‘여계/여성 천황’ 용인 문제는 기코 비가 히사히토(悠仁, 후미히토 친왕의 아들, 2006~)를 낳으며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된 듯했다.⁷⁴ 그러나 근래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여성 황족(미야케) 창설’ 문제에 관해 분석한 박삼헌은 보수진영 내에서 여성 황족의

71 「女性・女系天皇「支持」が高く 天皇に「親しみ」58%」, 『東京新聞』, 2020.4.26., <https://www.tokyo-np.co.jp/article/14232> (최종 검색일: 2023. 11. 5.).

72 「女性・女系天皇「支持」が高く 天皇に「親しみ」58%」.

73 「愛子天皇は「〇」、圭殿下は「×」!? 「女性・女系天皇」容認が6割, 「宮家復活」は2割 皇位継承アンケート結果発表」, 『文春オンライン』, 2019. 7. 17., <https://bunshun.jp/articles/-/12852> (최종 검색일: 2023. 11. 5.).

74 박진우, 「여성·여계천황론과 상징천황제」, 『일어일문학』 41호,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313~337쪽.

창설을 반대하는 과들이 ‘이 문제를 황위 계승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서 그 대안으로 옛 미야케의 황적 복귀’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⁷⁵ 그리고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여론도 수렴되었는데, 이때 여성 황족 창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여성 황족 창설 문제를 여계/여성 천황론으로 연계해 생각해 ‘만세일계’라는 남계로 이어져 온 전통이 와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⁷⁶ 그런데 최근 아이코 내친왕(敬宮愛子内親王, 현 레이와 천황과 마사코 황후의 외동딸, 2001~)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계/여성 천황론’이 다시금 천황가의 이슈로 재점화되며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다.

‘여계/여성 천황’ 논의의 핵심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찬성과 반대 의견 차이도 다르지 않다. ‘여계/여성 천황론자’, 즉 여계/여성의 황위 계승을 찬성하는 국민은 궁극적으로 아이코 내친왕(공주)의 천황 계승을 응원한다. 따라서 아이코를 황태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여론전에서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활약이 눈에 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근 15년간 천황에 관한 저서뿐 아니라,⁷⁷ 최근에는 『아이코 천황론』(ゴーマニズム宣言スペシャル・愛子天皇論)(扶桑社, 2023)을 간행해 역사적으로 여성 천황의 존재와 여계 천황의 합리성을 선전하고 있다. 또 ‘아이코 공주를 황태자로’(愛子さまを皇太子に)라는 캠페인 겸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에서 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제를 끌기도 했다.⁷⁸ 그의 목적은 한 마디로 황실전범에 기록된 ‘남계 장자(남자) 계승’ 원칙이라는 황위 계승에 대한 남계주의를 고수하는, 이른바 ‘남계 컬트’(男系カルト)의 논리를 하나하나 격파해 아이코를 황태자로 올릴 수 있는 공론을 강화하는 것

75 박삼헌, 「‘만세일계’의 주박에 걸린 보수논객들」, 242~249쪽.

76 박삼헌, 「‘만세일계’의 주박에 걸린 보수논객들」, 249~250쪽.

77 『ゴーマニズム宣言スペシャル』 시리즈로 『天皇論』(2009), 『昭和天皇論』(2010), 『新天皇論』(2010), 『天皇論 平成29年』(2017) 등 천황입문서를 비롯해 헤이세이 천황의 양위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서를 간행했다.

78 「『愛子さまを皇太子に』と訴えるイベント開催：女性天皇への道は開けるか」, 『nippon.com』, 2023. 8. 18., <https://www.nippon.com/ja/in-depth/d00929/>(최종 검색일: 2023. 11. 5.).

이다.

‘남계 컬트’의 논리는 ①황실전범(皇室典範)의 남계 장자 황위 계승의 전통과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고, 지금처럼 황자가 없을 경우 ②측실(側室)을 부활시키거나 진무(神武, 일본의 1대 천황, B.C. 711~B.C. 585) 천황의 Y염색체를 가진 구황족의 황적을 복귀해 천황의 양자로 들여 황위를 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반론은 ①이미 천황가에 여성/여계 천황이 10대(8명)에 걸쳐 존재했고,⁷⁹ 황실전범에서 말하는 장자는 남녀를 불문한다. 그리고 ②구황가의 황적 복귀는 헌법위반에 해당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출신(가문)에 따른 차별, 기본인권 유린’이 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반론이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역사적 근거도 나름 충분하다. 오히려 ‘남계 컬트’가 측실 부활을 주장하며 그 논리적 근거로 현대의학의 발달로 유아사망률이 저하됐다는 황당한 통계를 제시한 다거나, 구황가의 황적 복귀를 위해 ‘황적 복귀를 원하는 모임’과 같은 지지파가 형성되었고 실제 황적 복귀를 원하는 지원자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또 구황족 남자에게 천황가의 Y염색체가 전해져 오고 있어 그들이 일반인과는 다른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다 등,⁸⁰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이를 논박하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⁸¹ 그러나 그의 주장에서도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 후미히토나 히사히토도 황위 계승을 위한 후보자인데, 그들이 황사(皇嗣)로 부적합한 이유에 관해서는 전혀

79 推古天皇(33대), 皇極天皇(35대), 齊明天皇(37대), 持統天皇(41대), 元明天皇(43대), 元正天皇(44대), 孝謙天皇(46대), 称徳天皇(48대), 明正天皇(109대), 後桜町天皇(117대)를 가리킨다. 10대이지만 8명으로 말하는 이유는 皇極天皇과 齊明天皇이 동일인이고, 孝謙天皇과 称徳天皇 역시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80 小林よしのり, 『愛子天皇論』, 扶桑社, 2023, 41~70쪽, 239~249쪽.

81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남계 컬트’의 남성중심주의적이고 가부장적 원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들에게나 적용되는 원시적이고 야만적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의 유교가 여전히 사회규범으로 기능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라고 하는데, ‘남계 컬트’의 주장은 이러한 중국, 한국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원리라는 것이다. 묘하게 ‘남계 컬트’의 비합리성을 중국, 한국의 역사 인식이나 전통으로 연결해 비하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저 아이코가 황태자가 되어야 하는 정당성만을 ‘아이코 반대자들’에 대한 반론처럼 강조한다.

‘남계 켈트’ 주장이 갖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 측면은 현재 일본 대중의 지적 수준에서도 벗어나 있다. 『아이코 천황론』에 대한 아마존 후기를 살펴보면, 대중의 지적 수준과 함께 천황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후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내용은 ‘남계 켈트’의 비상식적 태도로부터 ‘진실’을 알게 해 준, 그래서 ‘상식 있는 자’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는 감상이다.⁸² 그중에서도 오늘날의 화두가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며 세계 군주국가들과 비교해 일본 천황가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글은 흥미롭다.

요즘 세계의 트렌드 키워드는 ‘다양성’, ‘지속가능성’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코 천황이 탄생하면 그야말로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황실이 될 것이며, 그 결과 국내외에 ‘일본이 변했다’는 밝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 분명하다.(2023년 일본의 젠더 격차 지수는 G7에서 가장 낮은 125위인데, 아이코 황태자가 탄생하면 이 점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확일적이고 지속하기 어려운 남계 남성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상황 폐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다 안정적인 직계(양계) 계승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우리 국민의 몫이다.⁸³ [밑줄은 필자]

82 <https://www.amazon.co.jp/%E3%82%B4%E3%83%BC%E3%83%9E%E3%83%8B%E3%82%BA%E3%83%A0%E5%AE%A3%E8%A8%80SPECIAL-%E6%84%9B%E5%AD%90%E5%A4%A9%E7%9A%87%E8%AB%96-%E5%B0%8F%E6%9E%97-%E3%82%88%E3%81%97%E3%81%AE%E3%82%8A/dp/4594095003> 참조(최종 검색일: 2023. 11. 5.) 댓글 형식의 후기를 읽고 이 책 구입이나 혹은 천황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좋아요)는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다. 145여 개의 후기가 고르게 평균 85여 명(최저 4명~최대 111명)의 ‘좋아요’를 받고 있다. 대부분 황위계승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남계 남자 계승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아이코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존재가 일본의 밝은 미래를 보여 준다는 글들도 제법 눈에 띈다.

83 <https://www.amazon.co.jp>의 후기 중, 「もう見て見ぬふりなんて できないよ 絶対」라는 제목의 Mマン이라는 닉네임으로 2023. 7. 5.에 달린 후기다.

유럽 군주국가 중에서 현재까지 ‘남계 남자’만을 상속 대상으로 하는 곳은 인구 약 4만 정도의 초소국, 그리고 일부다처제의 아랍 중동 국가뿐이기에 일본이 소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아이코의 황위 계승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지속 가능한’ 천황가에 대한 바람을 알 수 있는데, 아이코에 대한 기대감이 천황가의 유지, 상징천황제의 존속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인식은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젠더 이슈까지 포함한다.

아이코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앞서 살펴보았던 ‘마사코 황후 서사’의 주요 쟁점을 잇고 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반박하고 있는 아이코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그 저변에 ‘마사코의 시련’이 이른바 ‘자칭 보수파’(아나르코 우익, 남계 컬트)를 결속하게 만든 원인으로 나온다. ‘마사코 폐위론’을 주장하기도 한 ‘남계 컬트’는 황태자비 시절의 마사코를 지키려 했던 황태자(현 레이와 천황)마저도 폐태자로 공격하였다.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유지하려면 히사히토 친황이 어려서부터 황태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시 황태자의 동생 후미히토가 친황, 곧 히사히토의 아버지가 친황에 즉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⁸⁴

황태자 퇴위까지 확장된 ‘마사코 폐위론’에서 주된 잣대는 후사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황태자비 전하는 황실에 계시는 한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고 마사코가 공무에 임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문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 대외적 공무 자리에서 ‘후사를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마사코를 배제했다. 아이코를 출산할 당시에 이미 아이의 성별을 알고 있던 궁내청에서는 출산 이전부터 둘째를 계획하라는 압력을 넣었다.⁸⁵ 결국 마사코에게 주어진 공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사를 낳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며 공무의 부담도 덜어 주는 것 같았지만, 이는 곧 황통을 이을

84 황태자 퇴위론에 불을 지핀 것은 황태자비 마사코가 적응장애로 10여 년 간 장기 치료를 받아 왔다는 보도 때문이었다(박삼현, 「만세일계의 주박에 걸린 보수논객들」, 252쪽).

85 三浦瑠璃, 「雅子さまは悩める女性たちの象徴です」, 『月刊文藝春秋』, 文藝春秋社, 2019, 66~76쪽.

아들을 낳기 위한 신체 점검에 다름 아니었다. 마사코에게 가장 큰 공무, 즉 황후로서의 역할은 ‘아들을 낳아 황통을 잇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황후의 공무 수행이 강조되는 맥락이 천황의 보조적 역할을 넘어 ‘황실 유지’라는 명분 속에서 부상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래 마사코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녀의 자질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과 아이코 천황 계승, 즉 여계/여성 천황론에 대한 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재 공론화된 여계/여성 천황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상승하면, 아이코가 황사를 이을 황태자에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사코는 황통을 이을 후사를 생산한 황후가 된다. 황실 유지를 위한 완벽한 공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아이코 천황론’이 힘을 얻을수록 마사코에 대한 호감과 공무 능력은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마사코의 황자 출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아이코 천황론의 등장으로 논박이 이루어진 구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상징천황제를 유희하는 대중

이상, 이 글은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천황가를 상업화와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온 미디어라는 기제는 대중의 관심과 감시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에 대한 선호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황가와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과 천황가의 ‘연결’, 혹은 천황가의 ‘열린’ 변화는 황후(황태자비)의 성격과 인품을 ‘창조된’ 역사성과 ‘모순된’ 도덕주의적 서사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을 양상하면서, 황후(황태자비) 개인의 정체성을 소비하고 상품화해 갔다. 미디어를 통해 마사코 황후에게 서사성을 부여하고, 또 그 판타지를 소비하는 시선이 상징천황제를 유희하는 대중들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마사코 황후에 대한 서사적 특징은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끊임없

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유희적 성격을 가진 대중적 판타지라는 점이다. 판타지의 세계에서 시선의 주체가 ‘바라보이는’ 대상과 동일시하며 유희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사를 만들어 내고 소비하는 태도가 쾌락을 위한 욕망의 분출로 끝난다면 마사코 황후의 서사는 한낱 대중의 과도한 관심, 관음적 증상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대중은 공무라는 사회적 의미와 역사성을 판타지 세계에 결합해 새로운 만족 대상을 찾고자 한다. 즉, 마사코라는 기표에 더욱 몰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 과정에서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는 시선 주체의 합리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다.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판타지인 것이다.

‘유구한 전통’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제에서 천황가의 위상, 혹은 존재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오히려 황태자비, 황후, 그리고 근래에는 근친왕의 결혼 스캔들을 통해 천황가의 존재감이 환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패전 이후 일본국헌법(신헌법)의 공포와 함께 천황의 역할을 ‘상징’으로 박제하면서 명명되었다고 알고 있던 상징천황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천황제가 이미 10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상징천황제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절대권력의 아우라가 쇠워진 근대천황제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며 오늘날과 같은 상징적 존재로서 천황과 천황가는 존재해 왔다는 말이다.

또 한편에서는 ‘현인신’이라 불리며 국가종교화되었던 전전의 권위주의적 천황의 위치가 19세기 후반부터 미디어의 유포를 통해 권위주의적 천황 표상과는 거리를 둔 대중천황제의 맹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1900년대, 특히 다이쇼기에는 미디어 보도를 통해 이미 지금과 같은 ‘상업성’과 ‘세속성’을 보였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메이지 이후 천황제 자체가 1930년부터 전시기 동안 단절이 있었지만, 전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중 친화적 기반 위에서 영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후대에 와서

개념화된 천황제에 대한 시각을 역으로 소급해 가며 역사성을 찾아가는 방식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마사코 황후 서사의 과편화가 천황가의 권위에 미친 영향으로 짐작컨대 유구한 역사도 점차 정보화되면 그 서사적 기능을 상실하며 정치성을 잃듯이, 천황제의 위상 또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상징천황제를 시선 권력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천황가 이슈, 곧 마사코 황후를 서사화해 소비하는 일본사회의 심연을 직시할 수 있다. 대중이 천황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작용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두된 ‘아이코 천황론’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과거 남계/남자 계승이라는 기존 천황가의 특수성을 국민이 직접 개입해 논쟁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황실 유지’라는 천황가의 역할, 마사코 황후의 공무에 투사된 대중의 판타지이기도 할 것이다. 천황가와 대중의 ‘관계 맺음’에 마사코를 둘러싼 판타지 서사가 지속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想』第32卷 第7号, 2004.
- 北村小夜, 『慈愛による差別: 象徴天皇制 教育勅語 パラリンピック(新装増補版)』, 梨の木舎, 2020.
- 国際女性の地位協会, 「林陽子さんへのインタビュー: 女性差別撤廃委員会委員としての11年間の活動を振り返って」, 『国際女性』 第33号, 2019.
- 佐藤文明, 『戸籍うらがえ史考: 戸籍 外登制度の歴史と天皇制支配の差別構造』, 明石書店, 1988.
- 佐藤文明, 「象徴天皇制にとって戸籍とは何か」, 戸籍と天皇制研究会 編, 『戸籍解体講座』, 社会評論社, 1996.
- 鈴木裕子, 『天皇制「慰安婦」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 鈴木裕子, 『フェミニズム 天皇制 歴史認識』, インパクト出版会, 2006.
- 鈴木裕子, 『天皇家の女たち: 古代から現代まで』, 社会評論社, 2019.
- 竹村和子, 『愛について: アイデンティティと欲望の政治学』, 岩波書店, 2002.
- 早川紀代, 『近代天皇制国家とジェンダー: 成立期のひとつのロジック』, 青木書店, 1998.
- 早川紀代, 『近代天皇制と国民国家: 両性関係を軸として』, 青木書店, 2005.
- 菱木政晴, 「宗教としての天皇制を考える」, 『季刊ピープルズ プラン』 第84号, 2019.
- 堀江有里, 『レズビアン アイデンティティーズ』, 洛北出版, 2015.
- 堀江有里, 「『国家と教会』論 再考: 天皇代替わり時代におけるキリスト教会の責任」, 『人権教育研究』 第28号, 2020a.
- 堀江有里, 「天皇制とキリスト教への一考察: 身分制度 性差別 異性愛主義」, 『キリスト教文化』 第15号, 2020b.
- 堀江有里, 「天皇制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 国家のイデオロギー装置とクィアな読解可能性」, 菊地夏野・堀江有里・飯野由里子 編著, 『クィア スタディーズをひらく2: 結婚, 家族, 労働』, 晃洋書房, 2022.
- 安丸良夫, 『近代天皇像の形成』, 岩波学術文庫, 2007[1992].
-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昭憲皇太后の表象と女性の国民化』, 筑摩書房, 2001.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 박이진

- 가와이 하야오, 햇살과나무꾼 옮김, 『판타지 책을 읽는다』, 비룡소, 2006.
- 권숙인, 『젠더와 일본 사회』, 한울, 2016.
- 권숙인,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9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 김경은·김갑숙, 「에곤 실례의 자화상 분석: 라캉의 응시 개념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5(1), 美術治療研究, 2018.
- 다울링, 콜레트, 이호민 옮김,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2002.
- 라캉, 자크, 홍준기 외 옮김, 『에크리』, 새물결출판사, 2019.
- 매킨타이어, 리, 김재경 번역, 『포스트트루스-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두리반, 2019.
- 멀비, 로라, 이기형·이찬욱 옮김, 『1초에 24번 죽음』, 현실문화, 2007.
- 박규태, 『일본정신분석』, 이학사, 2018.

- 박삼현, 「'만세일계'의 주박에 걸린 보수논객들」, 『일본연구』 26, 2016.
- 박이진, 「일본의 황후 표상과 젠더: 천황가의 이미지 정치와 황후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과랑, 2022.
- 박진우, 「여성 여계천황론과 상징천황제」, 『일어일문학』 41호,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 볼, 제임스, 김선영 옮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다산북스, 2020.
- 송병권, 「근대 천황제 국가와 역사학: 근대천황제의 양면성과 관련하여」, 『비교일본학』 36,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6.
- 양수현, 「상징천황제와 황실 여성의 역할」,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 오진희, 「시선의 권력, 그리고 여성관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 이택광, 「관음증 시대의 욕망」, 『실천문학』, 계간 실천문학 여름호 특집, 2019.
- 전홍식·박애진, 『판타지』, 북바이북, 2015.
- 푸코, 미셸,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3.
- 프리츠, 마틴·요코 코바야시, 조희진 옮김, 『마사코: 일본 왕실에 갇힌 나비』, 눈과마음, 2005.
- 한병철, 최지수 옮김, 『서사의 위기』, 다산초당, 2023.
- 「「愛子さまを皇太子に」と訴えるイベント開催：女性天皇への道は開けるか」, 『nippon.com』, 2023. 8. 18., <https://www.nippon.com/ja/in-depth/d00929/>(최종 검색일: 2023. 11. 5.).
- 「愛子天皇は「○」, 圭殿下は「×」!? 「女性 女系天皇」容認が6割, 「宮家復活」は2割 皇位継承アンケート結果発表」, 『文春オンライン』, 2019. 7. 17. <https://bunshun.jp/articles/-/12852>(최종 검색일: 2023. 11. 5.).
- 赤松啓介, 『天皇制起源神話の研究』, 美知書林, 1948.
- 秋月俊一郎, 『よみもの天皇紀: あるひは「天皇がいかに人間적であつたか」といふ話』 中巻, 人民社, 1949.
- 天野恵一 編, 『大衆社会と象徴天皇制』, 社会評論社, 1995.
- 井上輝子, 「女性と天皇制(18完): マイホーム主義のシンボルとしての皇室」, 『思想の科学』 92号, 1978.
- 「いま国民がいちばん知りたい美智子皇后の「宮中民主化革命」: 「大喪」後の国民と皇室の関係を考える」, 『週刊ポスト』 21(10), 小学館, 1989.
- 遠藤興一, 「象徴天皇制とその慈恵の性格について」, 『明治学院大学社会学 社会福祉学研究』 140, 明治学院大学社会学会, 2013.
- 大石裕, 「戦後日本の大衆社会論とマス 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再考」, 『法學研究: 法律 政治 社会』 90(1),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17.
- 大下英治, 『慈愛のひと美智子皇后』, 光文社, 1991.
- 太田彩, 「皇后陛下のご養蚕とその文化的意義: 皇后陛下, ご養蚕を引き継がれて」, 『日本絹の里紀要』 18, 群馬県立日本絹の里, 2015.

- 岡田尚子, 「正倉院宝物を甦らせた皇后陛下のご養蚕」, 『明日への選択』 235, 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 2005.
- 小野昇, 『天皇の素顔』, 双英書房, 1949.
- 学習研究社 編, 『天皇陛下と皇后さま: 希望に満ちた平成の皇室』, 学習研究社, 1991.
- 片野真左子, 「近代皇后像の形成」, 『近代天皇制の形成とキリスト教』, 新教出版社, 1996.
- 加納實紀代, 『天皇制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 香山リカ, 『皇室女子: “鏡”としてのロイヤル ファミリ』, 秀和システム, 2019.
- 河西秀哉, 「戦後社会と象徴天皇制: 明仁天皇 美智子皇后に焦点をあてて」, 歴史科学協議会 編, 『歴史評論』, 2015.
- 河西秀哉, 「敗戦後における皇后イメージ」, 『女性学評論』 27, 神戸女学院大学女性学インスティテュート, 2013.
- 河原敏明, 『昭和と平成の皇太子妃: 美智子皇后と雅子さま』, 講談社, 1993.
- 河原敏明, 『美智子妃』, 講談社, 1991.
- 「「宮中革命」美智子皇后のパワーゲーム」, 『週刊ポスト』 22(19), 小学館, 1990.
- 宮内庁 編, 『貞明皇后大喪儀写真帖』, 宮内庁, 1951.
- 「皇后学修業」に明け暮れる今後」, 『週刊読売』 17(55), 読売新聞社, 1958.
- 「皇后さまの魅力」, 『婦人生活』 9(3), 婦人生活社, 1955.
- 「皇后さま60歳 国内外の公務, 精力的に」, 『日本経済新聞』 2023. 12. 9., <https://www.nikkei.com/telling/DGXZTS00008200X01C23A2000000/>(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皇后の座(インサイド・レポート): 美智子さんを待っている生活とお仕事」, 『週刊読売』 17(56), 読売新聞社, 1958.
- 「皇后のデザイナー: ミッチー・スタイルが投げた波紋」, 『週刊読売』 17(58), 読売新聞社, 1958.
- 「皇族の人権「議論が必要」「際限ない私利の制限は危うい」」,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1. 10. 4., <https://www.yomiuri.co.jp/koushitsu/20211004-OYT1T50005/2/>(최종 검색일: 2023. 11. 30.).
- 「皇太子さま 雅子さま結婚20年」, 『読売新聞』, 2013. 6. 9.
- 小林よしのり, 『愛子天皇論』, 扶桑社, 2023.
- 佐佐木信綱, 『貞明皇后御歌謹解』, 第二書房, 1951.
- 昭和天皇, 『みやまきりしま: 天皇歌集』, 毎日新聞社, 1951.
- 「女性 女系天皇「支持」が高く 天皇に「親しみ」58%」, 『東京新聞』, 2020. 4. 26., <https://www.tokyo-np.co.jp/article/14232>(최종 검색일: 2023. 11. 5.).
- 『女性セブン緊急別冊』, 2004. 8. 11.
- 「新皇后美智子さま秘録」, 『週刊文春』 31(15-18), 文芸春秋, 1989.
- 「新天皇・新皇后美智子さま愛のすべて: ご誕生, 世紀のロマンス, そして, ご家族の絆」, 『週刊明星』 32(4), 集英社, 1989.
- 「SOCIETY 難しい「知る権利」との線引き 「皇室のプライバシー」で議論」, 『時事通信』 2002. 4. 26.
- 「その後の正田美智子さん 皇后学をまなぶ優等生」, 『婦人生活』 13(3), 婦人生活社, 1959.
- 「第五十一回の御誕生日をお迎えになる皇后さま」, 『主婦と生活』 9(3), 主婦と生活社, 1954.

- 大日本蚕糸会 編, 『貞明皇后』, 大日本蚕糸会, 1951.
- タカシフジタニ, 「象徴天皇制の未来について」, 『日本の歴史25 日本はどこへ行くのか』, 講談社, 2003.
- 高森明勅, 『新天皇皇后両陛下 受け継がれる126代の天皇史』, 英和出版社, 2019.
- 田代安子, 「癪者の友」: 貞明皇后, 『声』 887, 聲社, 1951.
- 近重幸哉, 「なぜ美智子さまの生き方は、全国民を魅了したのか」, 『PRESIDENT Online』, 2020. 3. 20., <https://president.jp/articles/-/34030>(검색일: 2023. 11. 30.).
- 綱脇竜妙, 「貞明皇后と救癪事業」, 『法華』 38(2) 1951.
- 「特集1 美智子さまのお嫁入りで皇室は変わったやさしいお姑さま人間皇后の幸福」, 『週刊平凡』 1(11), 平凡出版, 1959.
- 「特集 新天皇, 皇后「みなさんと共に…」で始まった新時代の皇室」, 『週刊読売』 48(6), 読売新聞社, 1989.
- 「独占スクープ 才媛外交官 小和田雅子さん」, 『週刊女性』, 1988. 1. 14.
- 所功, 「歴代の后妃と女帝の役割」, 歴史読本編集部, 『歴代皇后125代総覧』, Kadokawa, 2014.
- 友納尚子, 『皇后雅子さま物語』, 週刊文春特別編集, 文藝春秋社, 2020.
- 野口正造, 「貞明皇后と救癪事業」, 『生命保険協会会報』 34(1), 1951.
- 羽賀祥二, 「天皇制と稲作儀礼」, 『史学』 59, 名古屋大学文学部, 2013.
- 萩萩月, 『天皇陛下を語る: 日本人の魂に捧ぐ 訂』, 愛花書院, 1953.
- 早川紀代, 『近代皇后制国家とジェンダー』, 青木書店, 1998.
- 原武史, 『〈女帝〉の日本史』, NHK出版新書, 2017.
- 原武史, 『皇后考』, 講談社, 2015.
- 原武史・吉田裕 編, 『天皇 皇室辞典』, 岩波書店, 2005.
- 深谷昌志, 『良妻賢母主義の教育』, 黎明書房, 1981.
- 福田清人, 「国母陛下の辿られし道 皇后さま物語」, 『婦人生活』 10(3), 婦人生活社, 1956.
- 坊城俊良, 『宮中五十年』, 明德出版社, 1960.
- 「雅子妃の人生「勉強が出来すぎる女性の不幸」」, 『週間現代』, 2013. 6. 25.
- 毎日新聞社図書編集部 編, 『天皇家の生活』, 毎日新聞社, 1963.
- 松崎敏弥, 『美智子さまお心のいたみを乗り越えて』, 三心堂出版社, 1993.
- 松崎敏弥, 『美智子さまと雅子さまの新皇室づくり』, 講談社, 1993.
- 松下圭一, 「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5), 中央公論新社, 1959.
- 三浦瑠璃, 「雅子さまは悩める女性たちの象徴です」, 『月刊文藝春秋』, 文藝春秋社, 2019.
- 右田裕規, 「戦前期「女性」の皇室観」, 『社会学評論』 55(2), 2004.
- 右田裕規, 「戦前期「大衆天皇制」の形成過程」, 『ソシオロジ』 47(2), 社会学研究会, 2002.
- 武者小路公共, 「貞明皇后の祖国愛」, 『総合文化誌』 9(4), 1956.
- 八幡和郎, 「なぜ皇室に1男2女をもたらした「良妻賢母」が嫌われるのか…紀子さまを攻撃する人たちの「本音」」, 『PRESIDENT Online』, 2023. 6. 29., <https://president.jp/articles/-/71092?page=2> (최종 검색일: 2023. 12. 12.).
- 『歴代天皇 皇后総攬』, 新人物往来社, 2006.

若桑みどり, 『皇后の肖像』, 筑摩書房, 2001.
渡辺みどり, 『美智子皇后と雅子妃新たなる旅立ち』, 講談社, 1993.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 김보경

- 安積明子, 『眞子内親王の危険な選択: 皇統を揺るがす一大事』, ビジネス社, 2021.
李美淑ほか, 『いいね! ボタンを押す前に: ジェンダーから見るネット空間とメディア』, 電子書籍版, 亜紀書房, 2023.
奥野修司, 『マコクライシス: 「眞子さんの乱」で見えた皇室の危機』, 日刊現代, 2022.
香山リカ, 『なぜ眞子さまのご結婚はバッシングされたのか: 皇室女子と「個人の意思」』, 秀和システム, 2021.
香山リカ, 『皇室女子: 鏡としてのロイヤルファミリー』, 秀和システム, 2019.
河西秀哉, 『近代天皇制から象徴天皇制へ: 「象徴」への道程』, 吉田書店, 2018.
桜井大子, 『雅子の「反乱」: 大衆天皇制の〈政治学〉』, 社会評論社, 2004.
篠田博之, 『皇室タブー』, 創出版, 2019.
藤澤志穂子, 『学習院女子と皇室』(新潮新書), 新潮社, 2023.
文藝春秋 編, 『秋篠宮家と小室家』(文春新書), 文藝春秋, 2022.
保阪正康, 「象徴天皇制の「聖」と「俗」」, 『文芸春秋』 99巻 12号, 文芸春秋, 2021.
保阪正康, 「新 皇室論(上) 皇室は反論権を持つべきなのか: 眞子さん結婚問題, 秋篠宮会見の歴史的深層」, 『サンデー毎日』 100巻 63号, 毎日新聞出版, 2021.
松下圭一, 「大衆天皇制論」, 『中央公論』 74巻 5号, 中央公論新社, 1959.
右田裕規, 『近現代の皇室観と消費社会』, 吉川弘文館, 2020.
水間政憲, 『ひと目でわかる皇室の危機: 天皇家を救う秘中の秘』, ビジネス社, 2019.
南博, 「天皇制の心理的地盤」, 『思想』 336号, 岩波書店, 1952.
茂木謙之介, 『SNS天皇論: ポップカルチャー = スピリチュアリティと現代日本』(講談社選書メチエ), 講談社, 2022.
茂木謙之介, 『表象天皇制論講義: 皇族 地域 メディア』, 白澤社, 2019.
茂木謙之介, 『表象としての皇族: メディアにみる地域社会の皇室像』, 吉川弘文館, 2017.
森暢平, 『天皇家の恋愛: 明治天皇から眞子内親王まで』(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2022.
森暢平, 『近代皇室の社会史: 側室・育児・恋愛』, 吉川弘文館, 2020.
森暢平, 「メディア天皇制論: 「物語」としての皇室報道」, 吉田裕・瀬畑源・河西秀哉 編, 『平成の天皇制とは何か: 制度と個人のはざままで』, 岩波書店, 2017.
安田常雄, 「象徴天皇制と民衆意識: その思想的連関を中心に(報告)」, 『歴史学研究』 621号, 續文堂出版, 1991.
矢部万紀子, 『美智子さまという奇跡』(幻冬舎新書), 幻冬舎, 2019.
吉見俊哉, 「メディアとしての天皇制: 占領から高度成長へ」, 網野善彦ほか 編, 『岩波講座 天皇と王権を考える 10 王を巡る視線』, 岩波書店, 2002.

배경을 볼 때도,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천황을 규정하는 방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제하에서 천황의 직무 역시 단순히 비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천황 아키히토의 오코토바를 분석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재현하는 신체성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가 그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욕망을 재현/대표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는 천황이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하는 신체를 넘어 제도로서 재생하는 신체를, 말하고 듣는 신체성을 통해 정동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일본국민의 통합과 일본국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제와 테크노크라시라는 이중성을 재현하는데, 이는 헤이세이 시대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구성한다.

주제어: 아키히토, 천황, 오코토바, 헤이세이, 상징, 대표

SNS 시대의 천황제: 약자 정치와 영성(spirituality)의 역할 | 모테기 겐노스케

본 논문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침투한 2010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과 황실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레이와 개원 전후로 일본정부는 황실의 인기를 이용했고, 그에 비해 황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는 개원의 원활한 실시를 기대한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와 공범 관계를 맺었다. 또 아키히토 천황의 담화에 약자 정치와 영성에 관한 서사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에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넘어갈 때 소셜 미디어 담론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매스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원이라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벗어난 잡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천황제를 둘러싼 이야기 해석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제어: 천황(제), 미디어 표상, 소셜미디어(SNS), 개원, 내셔널리즘, 아키히토 천황, 약자 정치, 영성

천황제와 성차별·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증언을 향해 | 호리에 유리

근대천황제는 일본사회의 성차별이라는 규범을 재생산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상징천황제라는 국가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국가체제를 문제 삼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의 황위계승을 통해 일본사회의 상황을 그려 낸 후에, 황위계승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이성애주의 문제를 밝혔다. 이미 일본 페미니즘에서는 천황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 제기 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에도 젠더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성중심주의와 이성애주의 양쪽에서 타자화된 '레즈비언'이라는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을 통한 잠정적인 분석도 제시해 둔다.

주제어: 상징천황제, 황위계승, 황실전법, 여성·여계천황, 반천황제운동, 가족국가관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 | 박이진

이 글은 상징천황제 이후 천황가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 변화를 '마사코'라는 기표를 통해 살펴보았

다. 천황가를 상업화와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 온 미디어라는 기제는 대중의 관심과 감시를 증폭시켰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에 대한 선호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천황가와의 소통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과 천황가의 '관계 맺음'이 황후의 성격과 인품을 '창조된' 역사성과 '모순된' 도덕주의적 서사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을 양산한 것은 황후 개인의 정체성을 과편화해 소비한 결과다.

'마사코 황후 서사'의 특징은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유희적 성격을 가진 대중적 판타지라는 점이다. 판타지 세계에서 시선의 주체가 '바라보이는' 대상과 동일시하며 유희하는 것은 일종의 위안과 도피이기도 하다. 또 마사코라는 기표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공무라는 명분을 창출해 강요해 왔다. 이러한 몰입 과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자,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폭력적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대중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일 것이다. 대중이 천황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작용 속에 마사코 황후의 서사는 '거울 이미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마사코, 기표, 판타지, 상징천황제, 시선의 권력, 거울 이미지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

| 김보경

이 글에서는 일본의 마코 공주 결혼 스캔들을 미디어가 다룬 방식과 이에 대한 반응 및 대응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포착되는 황실과 미디어가 맺어 온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디어가 일본 황실이 안고 있는 과제를 반영하여 이 결혼을 문제화한 방식, 둘째로 미디어에서 과열된 고무로 배성이 전개된 원인과 미디어가 내세우는 이른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의 양상, 셋째로 이번 스캔들에서 미디어 보도에 대한 황실의 태도와 그것이 레이와 이후 황실이 미디어 및 사회와 관계하는 방식에 시사하는 바이다. 주된 분석 대상은 일본에서 황실 스캔들 보도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주간지를 중심으로 한 잡지와 신문 기사다. 또한 황실이 이번 결혼 스캔들 보도에 취한 태도와 미디어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국민' 여론의 실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무히토 천황의 생일 기자 회견, 마코 공주의 결혼 기자 회견, 유튜브에 게시된 결혼 기자 회견 영상의 댓글, 여론 조사, 그리고 주간지 보도에 대한 SNS상의 게시글 등을 분석했다.

주간지 미디어는 두 사람의 약혼 내정 이전부터 고무로를 결혼을 통해 황실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설정하고, 마코 공주에게 지급될 일시금, 즉 세금이 고무로 모자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고무로에 대해 과도한 배성이 가해지도록 만들었다. 또 미디어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황실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 결혼 스캔들이 주는 이익을 좇아 폭주했다. 그러나 이들이 방패로 삼은 통일된 '국민'의 여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론 조사나 온라인상의 게시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스캔들에서 일본 황실은 이례적으로 미디어 보도에 대해 일관된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으나, 이것이 미디어와 황실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반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마코 내친왕, 고무로 게이, 주간지, 레이와 황실, 여성 미야케, 일시금, 황실 터부, 여론

in that regard making him an accomplice to the government's intentions. It is also noteworthy how Emperor Akihito's address included references to underdog politics and spirituality.

Social media discourse played a role in the transition from the Heisei to the Reiwa era. Most of the discussions originated from mass media and contributed to the celebratory atmosphere, but it was also possible to observe some noise that strayed from such moo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se subtle voices in order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understanding the narrative of the Japanese emperor system.

• **Keywords:** Emperor(System), Media Representation, Social Media(SNS), Change of the Era (改元), Nationalism, Emperor Akihito, Underdog Politics, Spirituality

The Emperor System and the Reproduc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Heterosexism: Toward the End of the Ideological Institution of the Japanese State | HORIE Yuri

The modern emperor system in Japan is an institution that reproduces the norms of sexism and heterosexism in Japanese society. However, most people living in Japan are so accustomed to the state system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ven problematize it. This paper will first describe the situation in Japanese society during the two replacements of the emperor, and clarify the issues of sexism and heterosexism with regard to the imperial succession.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the emperor system itself, Japanese feminists have also pointed out the system's significant social impact on people's consciousness and resulting customs of gender roles. However, such discussions had failed to include the perspective of heterosexism.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hypothetically present an analysis from the positionality of “lesbian,” which has been othered by both male-centeredness and heterosexism.

• **Keywords:** Symbolic Emperor System, Imperial Succession, Imperial Household Law, Matrilineal/Woman Emperor, Anti-Emperorship Movement, Family-State Ideology

The Power of the Sustainable Emperor's 'Narrative' and 'Gaze': The Public's Fantasy and Voyeuristic Gaze on Empress Masako | PARK Yi-Jin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Imperial Family aft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through the 'Masako' label. The media system, which has made the Emperors an object of commercialization and consumption, has amplified public interest in and scrutiny of the Emperors. This public interest may be meaningful as a method of communication with the Imperial Family, despite the change in information preferences. However, the tendency of the public to judge the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Empress based on her 'created' historicity and 'contradictory' moralistic narrative is the result of their consuming of her personal identity in fragments.

The 'Empress Masako narrative' is characterized as a popular fantasy with a playful character in which the public 'gazing' at her continually creates a fantasy world. In this fantasy

world, the viewer's playing with the object of his or her 'gaze' is in a way an act of consolation and escapism. In addition, in order to further immerse themselves in the name of 'Masako,' they have created and enforced the pretext of official duties. This process of immersion is a way of exposing the problem of the reality in which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failed to be upheld, and a way of defending oneself against such problem and consoling oneself for having to live in a violent reality. Empress Masako's narrative functions as a 'mirror image' in the semantic effe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public acceptance of the emperor system.

• **Keywords:** Masako, Signifier, Fantasy, Symbolic Emperor System, Power of Gaze, Mirror Image

Media and Royal Scandal: Focusing on Japan's Media Coverage of Princess Mako's Marriage | KIM Bokyoung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edia's coverage of Princess Mako of Japan's marriage scandal, examining the subseque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erial Family and the media. The study focuses on three main areas: the media's depiction of the marriage as reflective of broader challenges faced by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the construction and basis of the so-called 'national' public opinion in the media leading to extensive criticism; and the Imperial Family's reaction to the media coverage, exploring its implications for their interaction with media and society during the Reiwa era. The analysis centers on the role of magazines and newspapers, the key in reporting scandals involving the Imperial Family. A range of sources was analyzed to understand the Imperial Family's view on the media coverage and to assess the reality of the frequently mentioned 'national' public opinion. These sources included Emperor Naruhito's birthday press conference, Princess Mako's wedding press conference, comments from the wedding press conference video posted on YouTube, public opinion polls, and social media responses to magazine articles.

Prior to the couple's engagement, weekly media publications portrayed Komuro as a future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insinuating that the taxpayer-funded lump sum to Princess Mako would benefit him, leading to heightened media criticism. The media rationalized their coverage as serv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highlighting issues pertinent to the Imperial Family. However,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surveys and online discussions showed that the 'national' opinion purportedly represented by the media did not actually exist. Remarkably, the Imperial Family openly criticized the media's depiction of the scandal, a departure from their usual stance. Yet, this criticism appeared in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paradig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Imperial Fami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edia portrayals, public opinion,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 **Keywords:** Princess Mako, Kei Komuro, Weekly Magazine, the Reiwa Imperial Family, Female Imperial Household, Lump Sum Payment, Imperial Family Taboo (Chrysanthemum taboo), Public Opinion